



독립정신

2017. 3, 4 통권 92호

권두언_차기 정부의 과제_이학노

특집_촛불 아래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를 생각한다._곽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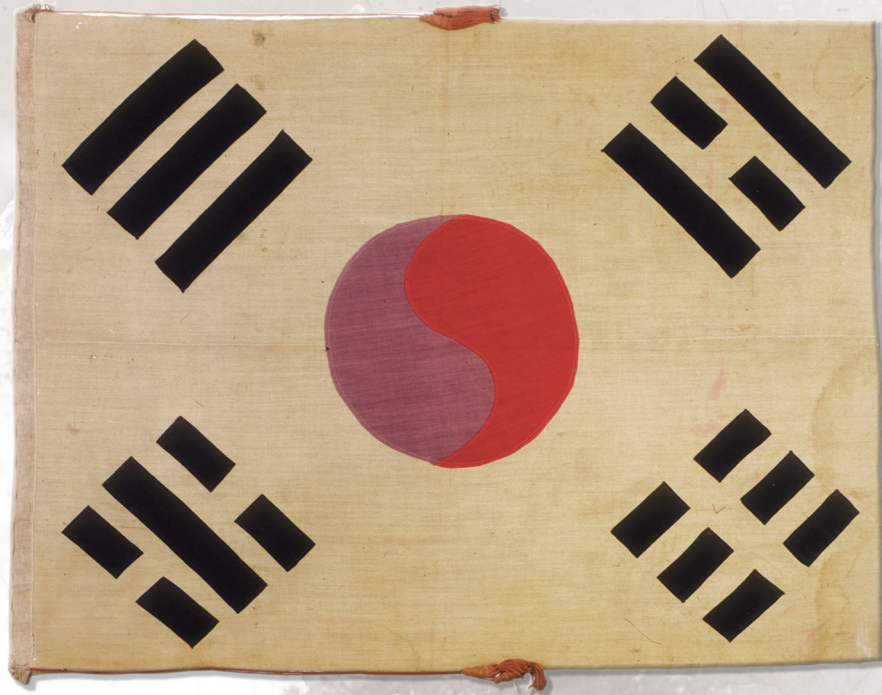
특별기고_2017대한민국의 봄

균등한 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_조인래

청년학생이 간다_공주 시내에서 찾아보는 근대 항일 유적지_김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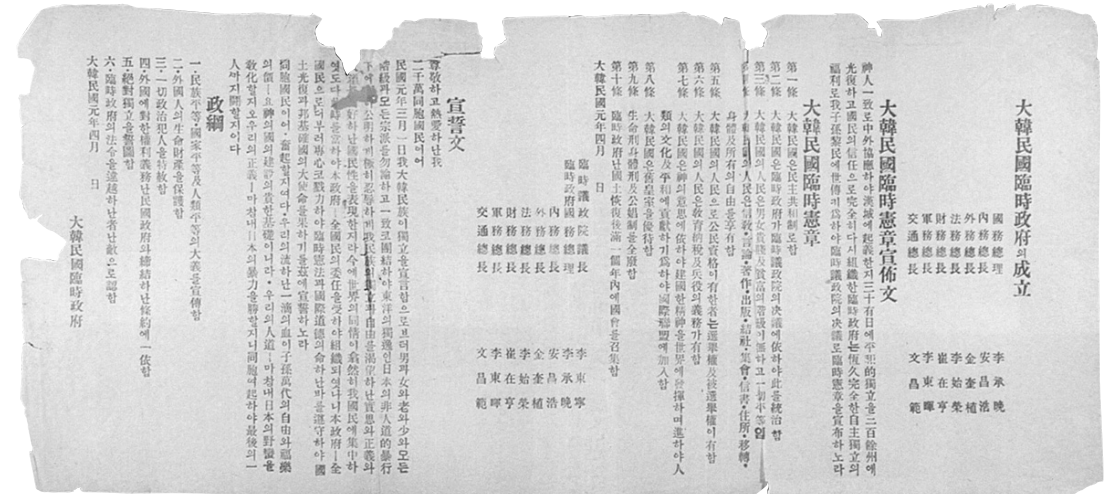
다시보는 좋은 기사_‘마지막 수업’이 된 어느 출판기념회_정운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하던 태극기



1923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이다.
임시의정원 제14·18대 의장을 지낸
김봉준의 아내 노영재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과 함께 제헌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 후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쳐 나가고, 주변과 내부의 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섯 차례 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그 헌법 정신에 따라 27년 동안 지속되었다.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독립정신

2017 3*4

통권 92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4519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22

04 권두언
차기 정부의 과제
| 이학노



27

09 특집
춧불 아래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를 생각한다.
| 곽태원

15 특별기고
2017대한민국의 봄
균등한 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
| 조인래



32

20 청년학생이 간다
공주 시내에서 찾아보는 근대 항일 유적지
| 김대은

30 다시보는 좋은 기사
'마지막 수업'이 된 어느 출판기념회
| 정운현

36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윤동주 고향 북간도 명동촌 교육가 "이의순"
| 이윤옥

38 영화읽기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 어느 젊은 군인의 초상
| 이두희

42 임정서거
역사와 책임
열사가 된 의사들
한국독립운동사
의암 손병희 평전
| 편집부

52 5기 임원 명단

55 독립정신 이모저모

62 정부포상자 명단



40



55



58

차기 정부의 과제



이 학 노
독립정신 편집위원

새 정부가 10개월 빨리 출범한다. 헌정(憲政) 질서는 파행 직전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갈등”은 “중요”로, “적폐(積弊)”가 “구악(舊惡)”으로, 그리고 “혼란”이 “위기”로. 이 허망한 단어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멀리는 해방과 분단 이래, 가깝게는 “압축성장”이라 불린 경제개발 과정에서 주어진 숙제를 풀지 않고 미룬 대가다.

1987년의 “6월항쟁”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충돌해 빚어낸 부정합(不整合)을 치유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전기(轉機)를 맞이했다. 그러나 표리부동(表裏不同)과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악무한적 진동(振動)은 “산업화”를 “성장의 수직화”로, “민주화”를 “분배의 양극화”로 변질시켰다. 이 암담한 현실이 혁명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언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 주역은 “촛불”이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가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광장으로 뛰쳐나와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기득권세력의 독주(獨走)와 비정(秕政)이 낳은 대의제의 공백을 직접민주주의가 메꾼 것이다. 차기 정부는 그 에너지를 빌려 출범하는 만큼, 주권자(主權者)에게 우리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과제는 실로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다. 국내문제는 핵심적인 과제만 꼽더라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뿐 아니라, 솔직히 말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 이리하여, 만사 제쳐놓고 정치개혁이 당면한 첫 번째의 개혁과제로 대두된다.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의 회의인 국회의 의석분포다.

현재 각 당의 의석수는, 집권이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에 31석이나 못 미치는 120석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무소속 8석이다.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파를 다 합쳐도 198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 숫자들은,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대표하고 조정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가 들 지경으로, 기득권의 황금분할로 짜여 있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법안 상정은 불가능하다. 재적의원 3/5 이상이면 180석이다. 바른정당만 협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법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수술의 첫 단계인 개헌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법치(法治)”는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사회적 규범 가운데 하나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적폐를 해소하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다시 세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률 개정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대화과 타협”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숙명이고,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를 감안하면 법률 개정은 정당간의 “연정(聯政)”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화”보다는 “대치”에, “타협”보다는 “담합”에 더 익숙하다. 이것이 바로 “연정”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지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개헌 이슈만 보더라도 권력구조로 의제(agenda)가 좁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명분을 기득권 정치세력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을 가능케 할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쩌면 위험천만한 정치실험이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기득권 나눠먹기”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권력구조 재편보다는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으로 맞추으로써 국민의 주권 행사 채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슈는 대의제의 입구를 넓혀 더 많은 이해관계를 국민대표자회의에 반영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도 연관된다.

어찌 되었든, 정치개혁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첫 번째 개혁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그것이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 상 “대화와 타협”을 전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진단은 다르지 않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난 대통령 탄핵에서 구속에 이른 과정을 주목하고, 시민의 민주역량에서 해법을 구해야 한다. “연정”이라는 참여의 동심원을 “협치(協治, governance)”라는 더 큰 동심원으로 확장시킬 때, 비로소 개혁드라이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사회 전 영역, 각 부문에서 분출하는 개혁의 요구들을 주권자인 국민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그 눈높이에 맞춰 받아 안는 것에 달려 있다. 그것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농단 부역자처벌 △세월호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적폐 청산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하며 공평무사한 복지프로그램 실행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육성 등의 민생 개혁으로 대표되는 차기 정부의 과제들이다.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지면에서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의 대강(大綱)을 국민에게 제출한 바 있고, 이를 따지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 과제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시급하고 중대하며, 서로 긴밀하게 물리고 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개혁으로 주권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드라이브로 “협치”의 참여공간을 차근차근 늘린다면, 차기 정부의 입지는 그만큼 넓어지고 과제 실행 또한 한결 더 용이해질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 굴절과 후퇴의 오욕을 감내하면서 여기까지 전진했다. 한 사람의 백보다 백 사람의 일보가 더 어렵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최초의 실험대이며, 이 점을 직시하고 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내문제 이상으로 더 심각한 게 국제관계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외교안보와

경제를 가리지 않은 채 극도로 불안하다. “북핵”이라는 이슈 하나만 갖고도 남북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대미·대중·대일관계의 틀이 완전히 뒤틀린 상태다. 민족의 생존권이 송두리째 부정당할지도 모를 오늘날 국제정세의 위태로움은 구한말의 그것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첩첩이 쌓인 국내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남북문제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 목숨을 걸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분단이라는 원죄(原罪)로부터 우리 민족의 비극은 파생되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根源)에는 남북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진정성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오죽하면 박정희 정권조차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을까. 불행하게도,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는 동안 남북의 긴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왔다.

보수정권은 노골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를 외쳤으며, 이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화의 단절로 맞섰다. 남북의 평행선은 주변 강대국에게 자국이기주의를 노골화 하는 빌미를 제공했고, 급기야 파국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선제타격론”, “국지전”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 이 언론 지면과 화면에 공공연하게 등장한다. 어느 경우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한 한반도와 한민족은 파멸의 막다른 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한 한 소위 보수정권이 “빼앗은 10년”을 되찾아,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이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갖고 남북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한반도 문제가 타결될 경우 과연 이것이 민족공동체를 지키고 통일로 가는 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남과 북은 대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야 한다.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파트너였던 미국과 관계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특히 대일외교가 당면한 현안이다.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라는 조롱을 들을 정도로 밀실에서 졸속 타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고, 해묵은 “독도 이슈” 역시 보수정권은 “입 다무는 게 상책”인 듯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정기를 부정하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채 진행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향배(向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알려진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과 맞물린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에 실로 가공(可憐)할 여파를 미치게 된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나카소네 정권 이후 “보통국가”, 즉 “전쟁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질치부심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 개편에 힘입어 “불침항모”라는 호전적인 표현으로 드러났다. 비록 그 당시 가상 주적(主敵)이었던 소련은 해체되었지


만, 중국과 북한을 그 자리에 대체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 “뜨거운 감자”인 사드(THAAD)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체계이고, 그것의 임무는 고고도요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무기를, 게다가 탐색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는 AN/TPY-2FH 레이더가 장착돼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무기를 왜 이 땅에 들여와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침항모”의 위병 노릇을 하는 파수꾼으로 전락했는가.

불행 중 다행이라면, 2016년 11월29일 공표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한쪽이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협정은 자동연장된다. 차기 정부는 탄핵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가 이 협정을 쫓기듯 체결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새로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드 또한 마찬가지다.

뒤늦게 한국이 G20 회의에서 사드의 조건부 철수론을 제시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완고하다. 사드가 북한 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의 북한 내 주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군이 배치된다면 당연히 미사일부대가 될 것이고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은 당연히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으로 발전할 게 자명하다.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있어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무역 규모에서 미국의 두 배 가까운, 제일 큰 교역국인 것이다. 무역이 나라의 경제를 지키는 보루인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차기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수정권 10년이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을 대치로 몰아가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된다.

어쩌면 제6공화국의 마지막 정부가 될지도 모를, 차기 정부의 어깨는 이렇게 무겁다. 차기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개혁과제들에 앞서 더 중요한 점은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정부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요구 아니겠는가. 

촛불 아래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를 생각한다.



곽 태 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부회장

들어가는 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주문이 선고되기까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크고 작은 결의와 실천이 있었다. 정유라로 상징되는 불공정한 대한민국에 분노한 어린 학생들은 중고생연대의 깃발아래 탄핵의 길 거리에 나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박근혜의 부패와 무능에 분노한 양심적 시민들은 그저 한 사람의 시민으로 광장에 모여 남모르는 옆자리의 시민들과 이신전심 어깨를 걸었다.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일자리 이야기에 웬 촛불이냐고 하겠지만, 지난 뜨거웠던 겨울에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본질은 민생이며, 또한 공정함과 깨끗함의 갈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IMF로 촉발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려놓은 팍팍한 삶,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층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 촛불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집단적 분노의 뒤에는 늘 신자유주의(혹은 자본주의)가 퍼뜨려 놓은 만연한 불공정함과 부패, 그리고 극소수만이 구가하는 탐욕이 있다. 그 이야기로 일자리에 대한 첫 실마리를 열어보자.

“1979년 미국의 상위 0.1%의 소득은 하위 90%의 20배였으나 2006년에는 77배가 됐다. 탐욕스런(greedy) 부자들은 파이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그 동안 관대한(decent) 노동자들을 속여 왔다.”

영국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미스트’가 금융위기가 한참이던 2009년 4월 10일자 커버스토리로 내놓은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It was socialism for the wealthy)’라는 매우 격앙된 표현을 쓰면서 불공정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소득불균형의 확산은 한쪽의 ‘탐욕’과 다른 한쪽의 ‘관대함’의 결과이다.

가장 자본주의적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는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소득불평등을 비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는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들이 수정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아주 잠깐 그러다 말았지만), 잡지가 표현하는 바 ‘파이의 공정한 배분’이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구세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보자. 만약 세상 모든 기업의 모든 노동이 자동화되면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자본주의가 아닌 세상일 것이다.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기계가 일자리를 다 점령해 버렸으니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사람이 사라진 세상이다. 산더미 같은 제품 옆에서 굶어죽는 사람들...기업들이 도산하고 체제가 무너지는 사태는 순식간에 몰아칠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품을 소비하는 구조이다. 그러니 내수진작을 부르짖으면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창과 방패(모순)이다. 공정한 분배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필요조건이다.

일자리, 생산물수요의 자식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단연 으뜸은 일자리이다.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노동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 곧 일자리 창출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된 수요이다. 어려운 말이 아니다.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햄버거 노동자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이다. 햄버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곳에 햄버거노동자의 일자리는 없다.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정책적으로 보면) 일자리 하나만 보지 말고 생산된 물건을 소비할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다. 국가가 공정한 분배나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일자리 증가를 설명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는, 책 속의 이론에 불과하다. 1939년 대공황이 왔을 때,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도심을 배회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 때에도 기존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줄여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임금을 낮춘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일자리와 연결한 케인즈였다. 뉴딜정책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정책이었다.

일자리, 공급자보호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라면 노동의 공급자는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공급자의 측면에서 노동자는 기업보다 훨씬 복잡한 경제주체이다. 가방끈이 길어야 고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결정,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변화에 대한 전혀 다른 체감도, 노동자가 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의 구제 프로그램인 실업수당, 산재수당 등 노동복지제도,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문제, 은퇴의 결정,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 곧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주체들이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시장은 외형상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노동과정은 수직적이고 명령복종의 관계이다. 노동조합은 그 관계를 완화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과 적어도 근로조건 개선에 도모하는 조직이다. 활동의 결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활동의 결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면 이 역

시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곧 정치지도자의 철학과 관련된다. 정권이 바뀌면 노동 정책이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그 승부는 어느 정도 역사가 증명한다. 앞서 언급한 뉴딜정책은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그리고 노동조합 강화정책을 기본축으로(극단적인 소득누진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과 함께) 내수를 진작시키고 미국국민의 삶의 수준을 평평하게 만든 정책이었다. 공화당 아이젠하워조차 뉴딜정책을 그대로 유지했고 그 결과 미국은 1960년대라는 전무후무한 번영의 시대를 구가했다.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경선후보로 나섰던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중간계급이 감소한 가장 분명한 이유로 노동자들이 단결해 더 좋은 노동조건을 위해 협상할 권리가 훼손된 것에서 찾고 있다. 중간계급을 강화하기 위해 더 좋은 임금, 더 좋은 혜택, 더 좋은 노동조건을 교섭하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제로 샌더스가 내건 최저임금 15달러는 결국 민주당의 강령으로 채택됐다.

‘괜찮은(decent)’ 일자리, 신자유주의로부터의 피신

도대체 ‘괜찮은’ 일자리는 어디에다 그 씨를 뿌려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글썄 필자의 생각에 해답은 간단하다. 실천을 하기엔 그 무게가 무겁긴 하지만 말이다. 해답을 말하기 전에 몇 가지 통계를 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전체 고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에 불과하다. 나머지 90.5% 가운데 4인 이하 기업이 36.8%, 5~299인 기업이 53.7%를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익히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00인~299인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3,272만원인 반면, 한 취업포탈에 의하면 2015년 30대 대기업 직원 평균연봉은 7,828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의 급여는 대기업의 42%에 불과하다.

비슷한 통계가 또 있다. 노동부가 지난 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37이라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이 인용에는 ‘비정규직 문제는 양극화 시정과 사회통합의 핵심과제’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종합하면 괜찮은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로 귀착된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다. 이 현실을 방치한 채 사회안전망이나 실업급여 확대, 혹은 기타 복지를 더 앞에 세우는 것, 부질없는 짓이다. 그 조차 포퓰리즘이니 어쩌니 하면서 반대하는 것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뿔이 증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방법은 두 가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내지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하나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국 재벌개혁,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일자리 문제는 이처럼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치밀함이 요구되는 주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 어렵지만 의지가 중요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지속성이 요구되는 일자리에 대한 비정규직 금지, 위반 시 강력하고 강력한 처벌, 그것만 해도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 좀 더 세밀한 설계는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겁고 엄중한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2015년 주 2,113시간)이 긴 것은 악명이 높다. OECD국가 중에서 세 번째이고 15년 전에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는 나라가 없다.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이긴 했으나 토, 일요일이 계산에서 제외되니 장장 68시간(40시간+12시간내 초과근무+주말 이틀간 1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면 삶의 질이 개선되기도 하겠지만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잘 다루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막강한 효자가 될 수도 있다.

미래, 터미네이터가 점령한 지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구절벽과 4차산업혁명이 관심선상에 올라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축소가 지금과 같은 약탈적 고용시장과 결합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암울할 것이다. 일자리와 노동을 마주하는 시각은 현명해야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정치를 교체해야 하는 이유이다.

알파고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임을 예견한다. 도대체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라니.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일자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2014년과 2015년 일 년 사이에 금융노동자 5만 8000명이 줄었다. 집도 짓는다는 3D프린터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뺏었으며 빼앗게 될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지만 지금의 사고로는 예단할 수 없는 두려운 미래임에는 틀림없다.

기계인간인 터미네이터가 인류의 일자리를 말살시킬지도 모를 세상은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까?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기계와 인류의 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다보스포럼이 2016년 1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역량(top skill)으로 꼽은 것은 의외로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력,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력, 탄력적 사고 등이 그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문제는 정치다. 

2017대한민국의 봄 균등한 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자.



조 인 애
조소앙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고르게 인간답게 사는 기회균등을 위한 민주공화국이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표하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삼균주의사상을 표방하고 조소앙이 기초한 임시헌장에 의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어 온 나라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국가의 형태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이 훼손 되고 헌법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주권과 균등한 사회는 실종되고 있는 현시점에 제헌헌법에 담긴 건국정신과 삼균주의를 표방한 건국강령을 통해 균등한 국가 국민주권시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해답을 찾아 보고자한다.

삼균주의와 대한민국건국강령

1940년 9월 기강으로부터 중경에 정착한 임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1941년 11월 28일 앞서 본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독립당의 당의·당장을 이어 임시의정원은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국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식으로 임정에 의한 광복후 건국할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으로서 실천 강령인 ‘대한민국건국강령(大韓民國建國綱領)’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1930년부터 임정의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어 온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그 바탕으로 건국목표와 임정에 의한 광복 후의 전체적인 건국구상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강령은 제1장 총강 7개항, 제2장 복국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은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임정의 정통성을 표명하고 있다. 즉 단군의 홍익인간과 이화세계(理化世界)의 이념이 담겨있다. 또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구현하는 삼균제도를 건국의 기본이념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복국은 상실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 방략을 모색한 것으로, 이 시기에는 광복운동자 전체가 주권을 대행하며, 임정의 국무위원회가 임시헌법에 의거하여 복국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 전 민족적 역량을 동원하여 국제적 협력을 얻어 일제를 분쇄하고 건국을 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3장 건국은 적(일제)의 모든 통치기구가 박멸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이룩하며 고등기초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삼균주의의 결실을 거두기까지의 건국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건국강령은 어느 외부사상을 모방하거나 변화한 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사상과 배경을 근거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평등한 입장에서 모두 수용하여 완전한 민족연합전선에 의한 투쟁론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는 광복 후의 국가건설을 세계평화에까지 연결시켜 한민족의 자유민주국가로 향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이념은 무엇보다도 동서양의 사상을 포용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자유민주적이고 독립적인 한민족의 미래를 설정한 것이었다. 또한 완전한 균등사회를 지향한 혁명적 이념으로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모든 차별의 구조를 극복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권리를 균등하게 향유함은 물론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한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전체인류가 평화롭고 고루 잘 살수 있는 세계일가의 형성을 기대한 정치철학이며 균등사상이었다.

이 같은 민주적, 진보적 건국이념이 태평양전쟁 이전에 이미 건국강령을 통해 수용되어 임정의 건국계획을 정립시켰다는 것은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광복 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교육·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하여, 임정에 기초한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균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선언하여 그 정통성이 확인 계승되었다.

결국 삼균주의에 바탕한 건국강령은 임정의 기본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이 되었으며 복국과 건국에 지침이 되어 광복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을 통해 그 정통성이 확인·계승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주권은 정말 이 땅에 온건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건국강령이 이러 하듯이 우리는 균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의 헌법은 건국강령의 기본 정치 철학인 삼균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권력과 부의 균등 사람과 사람의 균등 지역과 지역의 균등 사해일가와 균등정신이 이 시대에 실종되어 오지 않았는가?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삼균주의 정치이념으로 헌법을 제정하였지만 근 70년 역사를 근간이 흔들리고 정의가 실종되고 탄압으로 점철된 조국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현 시대에도 이어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각성하고 위정자들은 바로 보고 바로서는 국가관을 정립 해야 할 때이다.

왜곡된 역사관과 식민역사관이 이 땅에 남아 정의로 탈바꿈되어 현 시대에 아직도 있음은 수 많은 애국지사 독립 운동가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슬픔과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다.

해방과 분단국가 수립, 그리고 일제의 청산되지 않은 상태의 한반도가 반으로 나누어져 6.25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한 많은 분단국가의 서러움과, 남북이 극한 대치하고 있는 국가 상태 속에 작금의 상황 또한 남남으로 갈라져 촛불과 태극기 대립사태까지 온 것은 일부 여야 정치 위정자들이 정권 창출과 그들의 보신을 위해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새 정권을 창출하고 현 사태를 수습할 준비가 되어있는 단체이고 공당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혹 국민주권은 투표만 할 수 있는 주권의 행사를 위한 것인가. 교육의 균등 경제의 균등 권력의 균등이 제대로 되어 온 것인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는 실종되고 검찰의 권력화되고 재벌의 개혁과 국회의 개혁은 이루어져 있는가. 언론은 언론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은 실종된 지 오래 되었다.

균등의 사회실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70여 년 전 독립투사들이 꿈 꾸어 온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해방 이후 많은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행복을 누리왔는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행복지수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본다면 개혁이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이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현 정부 또한 진실성이 없는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표방했던 과거 정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기회와 균등한 사회 균등한 생활과 균등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 왔는가? 권력의 균등과 부의 균등은 실종되어 재벌을 위한 특혜와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인식의 부재 내

지는 헌법정신을 이어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작금의 사태 또한 소통의 불통과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과 부패한 정치에 의한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통한다면 이 시대의 균등하고 주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고 후세의 좋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권주자들은 권력의 균등과 개혁을 통한 사회통합의 큰 명제 아래 자기 자신의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7년 서울의 봄 국민주권의 승리인 동시에 시민혁명이다...

현 사태 또한 눈치만 보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사리 손 부터 월체어에 몸을 의지하며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이 이루어 낸 위대한 국민의 힘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통한 탄핵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의 영원히 이어갈 후손들에게 좋은 귀감과 교훈을 주지 않았던가. 물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현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산물이지만 분명한 건 한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준 동기라 여겨진다.

2017년 서울의 봄 대한민국의 봄은 촛불민심의 승리요 주권자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인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 앞에선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보여준 위대한 국민주권의 승리인 동시에 시민혁명이다 이제부터 국민주권이 완전 균등한 사회가 영원히 지속되길 염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 하는데 있어서 정치권 국가가 나서서 대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 하며 정치권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공주 시내에서 찾아보는 근대 항일 유적지



김 대 은
공주대학교 지리학과석사과정 재학

◆ 들어가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주는 과거 ‘웅진(熊津)’이라고 불렀던 백제의 고도(古都)이며, 교육과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역사 깊은 도시이다. 과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충청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강 수운의 중심지, 경기도와 전라도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비록 일제강점기 당시 경부선, 호남선 철도 건설이 대전으로 확정, 건설이 되고,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도시가 점차 쇠퇴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와 교량, 서양식 건축물 등 근대의 신식 문물이 다른 충남 지역에 비해 일찍 들어왔다.

또한 공주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거쳐 간 도시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선

시대 행정기관 중 하나인 충청감영에 관련된 것인데, 공주가 정치, 행정적 중심지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인물들이 충청도로 발령을 받아 공주를 거쳐 가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본회 김자동 회장님의 조부인 동농 김가진 선생님이 1906년에서 약 1년 동안 충청도관찰사를 지내며 공주에 있었고¹⁾,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동학농민군을 때려잡은 박제순이나 초대 충남도장관(지금의 도지사)을 지낸 박중양 또한 공주를 거쳐 갔다.

한편 공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행정기관 외에도 옥사, 병영 등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박해 시절에는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잡혀와 처형되었던 곳이자,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들이 정치, 행정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인 공주를 장악하기 위해 연합군(관군-일본군)과 싸우다가, 우금티와 그 주변 일대에서 연합군의 막강한 화력에 막혀 패배하고 수많은 농민군들이 희생당하거나 혹은 잡혀 처형당했다. 그리고 옥사의 기능은 감옥, 형무소로 개칭되어 일제강점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가와 우국지사들을 잡아 고문하고 수감하는 곳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이데올로기에 휩싸였고, 한국전쟁 당시 좌, 우간의 학살이 공주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이렇듯 공주라는 지역은 근, 현대시기에 발생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건과 유적, 그리고 기억들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하거나 혹은 교육 및 활용하는 경우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사학과, 공주학연구원,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등 개인 혹은 단체에서 공주의 근, 현대사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하는 인원의 수가 많지 않고, 또 남은 흔적 또한 한국전쟁이나 산업화 시기 도시개발로 인해 우리 눈앞에 사라져 버렸다. 설상 남아 있더라도 주목받는 근, 현대 문화유산 외에는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공주 시내에 남아있는 항일 유적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공산성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추모비와, 광복루(光復樓)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 다음 공주의 근대 교육과 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영명학교(지금의 영명 중, 고등학교)와 동농 김가진 선생님과 관련된 중동초등학교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치열했던 공주 우금티와 하고개, 그리고 전투에서 전사한 농민군의 시체를 묻은 송장배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지수걸 교수님의 논문과 저서, 공주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웅진문화』, 그리고 공주 지역 신문을 참고했다.

1) 일부 자료에는 1898년에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 공주 공산성 주변의 항일 유적지



사진 1 독립운동가 오동진 선생님의 추모비와 무이재 오강표 선생님의 순의 기적비 (출처 : 필자 촬영)

2015년 세계문화유산에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송산리 고분군과 함께 등재된 공산성. 공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자,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곳에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의 추모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하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나라를 되

찾은 것을 기리는 마음에서 현판을 바꾼 광복루(光復樓)가 공산성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로 들어가는 공산성 입구는 금서루(錦西樓)라 불리는 서문이다. 공산성 매표소에서 금서루까지 가는 길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석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석들은 충청도 관찰사나 공주목사를 지낸 사람들을 기리는 영세불망비이며, 공주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이다. 즉 이 비석군은 공주가 정치, 행정의 중심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흔적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비석들이 아닌 공산성 주차장 쪽에 있는 3개의 비석 중 2개의 비석이다. 바로 독립운동가 오동진(吳東振) 선생님의 추모비와 무이재 오강표(吳剛杓) 선생님의 순의 기적비이다. 하지만 우국지사들의 기념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내판이나 접근로조차 없으며,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래는 두 선생님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오동진은 의주의 일신학교와 평양의 대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중 1919년 3월 1일 당시 의주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의 손길이 미치자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했다. 이후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고 의용대를 편성해 군자금 모금활동을 했으며, 1920년에 광복군총영 총영장에 선임되어 관청파괴 및 요인 암살 등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1927년 옛 동지의 밀고로 체포되어, 일제의 재판을 거부하다가 1932년 무기징역을 받고 경성형무소를 거쳐 1944년 공주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사진 2 독립운동가 오동진 (1889~1944)

모진 고문으로 인해 1944년 5월 20일에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공주시에서는 그가 이 지역에서 순국한 점에서 그를 추모하고자 1982년에 추모비를 건립했다.

전라북도 태인 출신의 오강표는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에서 유학을 배우다가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을사오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주향교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선영과 스승의 무덤을 찾아 통곡한 뒤 절명시를 남기고 같은 해 10월 공주향교 명륜당 강학루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고, 2013년에는 그가 순국했던 강학루가 우리고장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오강표 선생님의 순의 기적비는 1977년에 건립되었다.

한편 공산성 내에는 백제왕궁으로 추정되는 터와 함께, 천년사찰 영은사, 동성왕 일화가 있는 임류각지 등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이름을 가진 누각을 만나게 된다. 바로 광복루(光復樓)라는 이름을 가진 누각이다. ‘왜 광복루일까?’, ‘여기서 광복군 활동이라도 했나?’ 라는 상상을 우리는 해본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사실 이 누각은 원래 공산성 내 중군영의 문루였던 것인데, 일제강점기 때 중군영이 폐지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제는 이 문루의 명칭을 웅심각(雄心閣)으로 바꾸었다. 해방 후 이 웅심각이라는 명칭은 1946년 4월이 되면서 광복루로 바뀌는데, 이 당시 백범 김구 선생님과 성재 이시영 선생님 등이 공주를 방문하면서, 일제의 잔재인 웅심각이란 명칭을 버리고 조국 광복을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지게 된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공주 지역하고 인연이 있는데, 구한말 민비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를 죽이고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한 김구가 피신했던 곳이 바로 공주 마곡사다. 그래서 마곡사에는 <백범 김구 명상길>이라는 산책길이 있으며, 대광보전 앞에는 그가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다.

◆ **교육도시와 항일운동 : 공주영명학교와 공주사립소학교**

공주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시작은 고대 백제부터 올라간다고 하며, 지금도 공주고등학교, 공주 사범대학 부속 중, 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영명중, 고등학교 등의 이름 있는 학교들이 공주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중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학맥을 이어오며 공주지역의 교육과 함께 항일운동을 주도하고 실천을 한 학교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공주 영명학교(지금의 영명중, 고등학교)와 공주사립소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3 영명학교 건물(신축건물) (출처 : 필자 촬영)

우선 공주영명학교는 1906년 10월에 감리교 선교사인 샤프와 윌리엄(우라암) 선생님이 세운 근대 사립학교이며, 공주지역에 처음으로 서구의 신학문이 들어오게 된 곳이다. 그러면서 학교에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는데, 특히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들을 수없이 배출했다. 대표적으로 2.8독립선언을 주도

하는 역할을 한 윤창석 선생님이 이 학교 제3회 졸업생이었고, 3.1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도 공주영명학교를 거쳐 갔다. 이외에도 황인식, 조병옥, 죽산 안창호, 유우석, 노명우 등이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들은 졸업을 하면서, 공주 지역의 항일운동에 헌신하였고, 자신의 모교에서 교사직을 맡아 항일운동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를 양성했다. 예를 들어 황인식 선생님의 경우 영명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해방 후에는 제3대 영명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영명학교는 공주와 그 주변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 공주지역에서 벌어지는 항일독립 만세시위운동을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1929년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동참, 동맹휴학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일제는 영명학교에 대한 모진 탄압을 진행하였고, 1940년 12월에는 영명학교 설립자인 윌리엄(우라암) 교장 선생님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거부 등 항일운동이 지속되자, 급기야 일제는 1941년 7월 30일 영명학교에 대해 강제폐교 조치를 취했다. 학교는 폐교 후 8년이 지나서야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사진 4 영명학교 내 기념비들 (출처 : 필자 촬영)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영명학교의 옛 건물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옛 건물이 노후가 심하고, 보존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02년에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현재 새로 지은 영명학교 건물이 들어서있다. 한편 학교 곳곳에는 학교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기념비와 흉상들이 배치되어 있다. 초대 설립자인 샤프, 윌리엄(우라암) 선생님을 기리는 기념비를 포함하여, 영명학교 출신 3인(황인식, 조병옥, 유관순)의 흉상이 있다. 그 뒤에는 학교 100주년 기념탑이 놓여 있다. 학교 뒷산인 영명동산에는 영명학교를 설립했던 샤프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묘역이 위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주사립소학교는 지금의 공주중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학교이다. 이 학교는 공주지역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 기관이자 민족 교육의 장소이며,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학교는 1898년 서울에서 신학문을 배운 심기섭(沈驥燮) 선생님의 의해 세워지게 되었다. 한편 학교 설립 당시 충청도관찰사를 맡고 있는 김가진 선생님이 지원 해주었다고 하는 내용의 논문 혹은 기사가 있는데, 이는 약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김가진 선생님은 충청도관찰사를 1906년에 지내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충남관찰부의 객사 한 칸을 빌려 사용했었으며, 주로 산술, 국어, 한글, 습자, 등 기초적 신학문을 가르쳤다.

그 후 1906년에 보통학교령이 공포되면서 소학교의 보통학교 개편에 따라 공주사립소학교는 공립공주보통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초대교장은 학교를 설립했던 심기섭 선생님이 맡게 되었다. 그 후 여러 명칭으로 변하면서 1949년 '중동'이라는 학교명을 사용하는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우금티고개와 송장배미 : 잔혹하게 진압된 동학농민군의 한이 서린 곳**

한국근대사. 특히 동학농민운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자, 동학농민운동이 크게

쇠퇴하게 되는 계기로 이야기되는 우금티 전투.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공주지역이다. 우리에게 동학농민운동하면 우금티 전투 하나만 부각되지만, 사실 공주지역은 우금티 외에도 하고개나 이인, 효포 등 농민군과 연합군(관군-일본군) 간에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고, 그 흔적이나 유적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전투에서 희생된 농민군의 시체를 묻었던 송장배미, 농민군을 때려잡은 공로로 이인면에 세운 친일파 박제순 공덕비, 공주지역 유림들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충효정신으로 '의병'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는 유림의병정난사적비, 농민군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한다는 이름으로 1973년에 세워진 '우금티 동학혁명군위령탑'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우금티와 송장배미를 다룰 것이다.



사진 5 우금티고개(우금티 터널)의 모습 (출처 : 필자 촬영)

우금티는 공주 금학동과 주미동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주와 부여를 잇는 고개이다. 현재는 터널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쉽게 왕래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 고개를 넘어 공주에서 이인, 탄천, 그리고 부여로 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왕래하였다. 우금티라는 명칭은 옛날에 이곳에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해가 저물었을 때 소를 몰고 이 고개를 넘다보면 도둑들에게 소를 빼앗긴다고 해서 해가 저물면 소를 끌고 이 고개를 못 넘게 했다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와, 설화로서 전해지는 금송아지 이야기가 있다.

우금티 전투는 동학농민운동에서 큰 사건으로서, 농민군이 관군과 연합한 일본군에게 참패하여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는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다. 우금티 전투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외세의 개입을 우려한 전봉준의 농민군과 관군과의 협상이 이루어졌고, 동학농민군을 해산하는 대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치를 인정해주었다. 한편 농민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집강소를 설치하여 아랫사람들을 위한 개혁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농민군 진압을 위해 들어온 일본군은 사건 해결 후 양국 철수를 한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1894년 6월 21일 파견된 군대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해 버리고, 왕과 왕비를 감금시켰다. 또한 동년 6월 23일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진 6 우금티전투 모습을 그린 기록화 (출처 : http://www.womansense.org/sub_read.html?uid=17468)

아산만에 주둔중인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외세, 특히 일본을 몰아내고자 여러 지역에서 재결성되었으며, 반외세, 항일 투쟁을 외치며 서울로 진격해 나갔다. 이 때 전라도 지역에서 결성된 세력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공주였다. 그 당시 공주는 충청지역의 행정, 정치 중심지이자 서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에 농민군은 공주를 점령하여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894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농민군은 5개의 진격로를 통해 공주를 총공격했다. 하지만 연합군(관군-일본군)의 막강한 화력에 의해 전투에서 크게 패했으며 결국 농민군은 패잔병 신세로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연합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세력이 약화되다가 동학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1894년 12월에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우금티 전투에서 살아남은 농민군들은 일부는 계룡산으로, 일부는 사곡·유구지역으로 도망쳐 피신해 있었고 이들 중 몇 명은 훗날 항일의병이 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한편 우금티, 하고개, 박산소 등 연합군(관군-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농민군들은 송장배미란 곳에 강제로 묻히게 되었다. 공주시 용진동 247에 위치하고 있는 송장배미에는 동학농민운동전적지를 알리는 송장배미 추모비가 있고, 그 뒤에는 강물은 말라도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는 용못이 있다. 송장배미는 못 옆에 붙은 논으로서, 명칭의 유래는 전사한 농민군들을 묻었다는 이유에서 유래되었다. 주민들의 증언이나 책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 송장배미 일대의 땅을 팠을 당시에 동학농민운동 당시 희생되었던 사람들의 백골이 수두룩하게 나왔으며, 심지어 그 당시 쓰였던 총과 물품들이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곳에서는 오랫동안 농민군의 넋을 달래는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확장된 도로와 신축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농민군이 희생되었다던 그 흔적은 이제 '송장배미'란 비석으로만 남아 용못과 함께 희생된 농민군의 넋을 추모하고 있었다.

한편 우금티에는 1973년에 건립되었던 '우금티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있다. 이 탑과 주변 일대는 현재 사적 제387호로 지정되어 있다. 탑의 비문에는 동학농민군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신’이나 ‘5.16혁명’ 등의 그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정치적인 성격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물론 현재 그런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훼손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사진 7 송장배미 (출처 : 필자 촬영)



사진 8 우금티 동학혁명위령탑 (출처 : 필자 촬영)




사진 9 2014년 11월 9일에 개최한 우금티 추모예술제의 모습. 우금티전투를 재현한 공연을 하고 있다. (출처 : 필자 촬영)

한편 우금티 동학혁명군위령탑 주변에서는 매년 11월 초에 ‘우금티 추모예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우금티 전투에서 희생당한 농민군의 한과 넋을 위로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 오면 억울한 희생을 당한 동학농민군의 넋을 달래는 추모공연과 함께 위령제가 열리며, 부대행사로 전통공예체험과 먹거리 즐기기를 즐길 수 있다.

◆ 글을 마치며 : 공주를 다시 살펴보다

과거 공주는 충청도 지역에서 번성했던 도시였다. 하지만 현재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도시는 점차 쇠퇴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시대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직 백제역사만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시대의 역사들은 소외되고 일부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공주 지역 근, 현대의 모습을 살펴보고, 일제에 대한 저항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공주 시내에 있는 기념비와 건물, 그리고 유적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것 같다. 또한 이 글에서 소개된 것 외에도 유구읍, 석송리 3.1운동 유적지나 마곡사의 백범 김구 관련 유적 등 공주의 읍, 면단위 지역에서도 항일유적지가 많이 있다. 물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곡사는 그것을 활용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나머지는 방치되거나 혹은 활용 및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글을 통해 만약 누군가 공주를 찾는다면, 고도 백제라는 이미지만 보지 말고 이런 근, 현대 시기 일제에 대한 항일운동의 모습도 함께 본다면 좋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으며, 특히 구한말에서 일제시가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우고 희생된 동학농민군과 의병들, 그리고 독립 운동가들의 노력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을 잊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며, 공주시에서는 근, 현대 항일 관련 유적지를 연구하고 잘 활용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공주지역의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수업’이 된 어느 출판기념회



정운현
언론인

선대 조상이나 부모를 잘 만나 인생을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흔히 ‘금수저’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제자를 잘 만난 덕분에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지난 9일 저녁 서울 종로2가 YMCA 옆에 있는 ‘문화공간 온’에서 조출하면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자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산 사람은 소설가 박도(72) 선생으로 이곳에서 박 선생의 근작 <허형식 장군>(눈빛출판사 간) 출판기념회가 열린 것이다.



소설가 박도 선생 <허형식 장군>출판기념회에서 허형식 장군 사진을 배경으로 선 박도 선생. 이날 박 선생은 3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나는 설렘으로 밤잠을 설치 눈이 부어 있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박 선생이 이대부고 교사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제 중년이 된 제자들은 학생시절로 돌아가 저마다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다. 필자 역시 출판기념회에 더러 참석해 보았지만 어느 행사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마지막 수업’을 연상시켰다.

행사 참석자는 50여 명에 달했지만 참석자는 극히 단출했다. 박 선생의 고교 시절 동창생, 이대부고 재직 시절의 동료교사(임무정·이동재·김성 선생), 그리고 박 선생이 허형식 장군 책을 쓰면서 맺은 인연들과 여러 제자들이 함께 했다.

외부 초청인사로는 이종찬 우당기념관장(전 국정원장),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 손자 이항증 선생(전 광복회 경북지부장), 장세운 박사(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눈빛출판사 이규상 대표, 인권운동가 고상만, 후배문인 정용국·김이하·김윤태, 고교동창 이관세 씨 등이었다.



독립운동가 후예들 왼쪽부터 이항중 선생, 박도 선생, 이종찬 관장, 필자

이항중 선생은 허형식 장군의 조카뻘로 박 선생을 중국대륙 항일유적지로 동행, 안내한 분이다. 장세운 박사는 국내 최초로 허형식 장군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분이며, 필자는 허 장군을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연이 있다.

초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찬 관장이 첫 번째로 축사를 했다. 흔히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불리는 우당 이회영(李會榮) 선생의 손자인 이 관장은 허형식 장군의 위대함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뼈아픈 얘기였다.

“우리나라 국호는 ‘대(大)한민국’ 인데 우리 국민들 마음은 ‘소(小)한민국’ 같다. 외국 것만 부러워하고 중요시하는 풍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독립운동사만 해도 그렇다. 빨치산이라면 흔히 체게바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허형식 장군이 훨씬 앞선다. 김일성 일파가 소련으로 도망을 갈 때도 허 장군은 ‘여기서 싸워야지 무슨 소리냐?’ 며 만주에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장렬하게 순국하셨다. 그럼에도 허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북에서는 김일성이 독립투쟁사를 독점하고 있고 남에서는 숨겨진 역사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 선생이 쓴 <허형식 장군>은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낸 셈이다.”

허형식(許亨植 · 1909~1942) 장군은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군장 겸 총참모장을 지낸 분으로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빨치산)으로 불린다. 경북 구미 출신의 허 장군은 만주군 장교를 지낸 박정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박도 선생 역시 구미 출신으로 박 선생은 평소 허형식 장군에 대한 책 집필을 필생의 업으로 여겨왔다. (참조 : 만주 제일의 ‘항일 파르티잔’ 허형식의 최후)

박 선생은 젊어서부터 문재(文才)가 뛰어났다고 한다. 중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이관세 박사(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이날 “박 선생은 고교 시절부터 문예반에서 활동하면서 교지 편집장을 지냈다”며 “박 선생이 고교 시절에 쓴 ‘국화꽃 필 무렵’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박 선생은 경기도 여주제일중학교, 서울 오산중학교, 중동고등학교, 이대부속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33년간 봉직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이기도 한 박 선생은 그간 작품집으로 장편소설 <약속>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며 산다> <제비꽃>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비어 있는 자리> <일본기행> <안흥 산골에서 띄우는 편지> 등을 펴냈다.

박 선생의 저작 가운데 주목할 점은 독립운동사 관련 저서들인데 역사학자 못지않은 열정으로 다양한 책들을 출간했다. <항일유적 답사기> <누가 이 나라를 지켰을까> <영웅 안중근>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일제강점기> <개화기와 대한제국> 등이 있으며, 조만간 <미군정 3년>도 펴낼 계획이다.

역사 관련 저작들은 대부분 눈빛출판사에서 나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눈빛출판사 이규상 대표는 “국어교사를 역사교사로 바꿔 놓아 죄송하다”는 우스개에 이어 “다들 박 선생님과 같은 역사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10년은 앞서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가문을 꼽으라면 안중근 가문, 석주 이상룡 가문, 우당 이회영 가문, 왕산 허위 가문을 꼽을 수 있다. 허형식 장군은 왕산 가문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석주의 손자이자 허형식 장군의 조카뻘인 이항중 선생과 우당의 손자인 이종찬 관장이 참석해 더욱 뜻깊었다.

이날 출판기념회를 이대부고 26회 졸업생 천경환(51)씨 등 30여 명이 십시일반으로 성의를 모아 준비했다. 천씨는 인사말을 통해 “박 선생님은 소탈하시고 진솔하신 분으로 제자들 가슴 속에 참 스승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22회 졸업생이다.

이어 ‘저자와의 시간’ 차례가 되었다. 한 제자가 “그간 쓰신 책을 얼마나 팔았느냐”고 물었다. 박 선생은 “언젠가 책 10권을 쓰겠다고 얘기해 놓고선 후회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보니 무려 39권이나 썼다”며 “모두 여러분 덕분에 많이 팔았다”고 웃어넘겼다. 대중적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는 없지만 박 선생의 책들은 생명력이 긴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 9시경, 마지막 순서로 ‘종례시간’이 되었다. 박 선생은 “30년만에 여러 제자들과의 만남이어서 길게 준비했노라”며 교사 시절을 회고했다.

“지난 시절 부족하고 잘못된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제가 잘 한 일이라면 교단생활 33년을 평교사로 지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장, 교감 같은 감투에 연연했다라면 오늘과 같은 자리는 결코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선생은 교사, 작가, 기자로 70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다. 평교사로 33년을 봉직한 후 정년을 몇 년 앞두고 후진을 위해 조기에 은퇴하였다. 이후 시골생활을 통해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저술활동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불태웠다. 끝으로 박 선생은 초로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


“인생은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으니 다들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늘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며 곳곳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진정한 강자는 위기에 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가진 인생을 사십시오.”

박 선생은 자신의 ‘꿈’ 세 가지를 소개했다. 첫째, 여러 제자 가운데 조국통일의 역군이 나오길 바라며, 둘째는 그간 자신이 쓴 작품이 통일문학상을 수상하는 것, 마지막으로 만일 당신의 저서가 용케도 많이 판매된다면 자신의 호(설송)를 딴 ‘설송문학상’을 제정하여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내는 문인들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다.

예수, 공자, 부처, 그리고 철학자 플라톤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들에게 제자가 없었다면 그들의 가르침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흔히 사제 간을 두고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고 한다. 스승은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진보한다는 말이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사제 간의 인연, 정(情)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종례를 끝으로 식순이 모두 끝이 났다. 그냥 헤어지기 섭섭했던지 누군가의 제안으로 다함께 일어나 모교의 교가를 제창하였다. 졸업한 지 30년이 지난 중년들임에도 10대 시절에 익힌 교가는 옛날 그대로였다.

박도 선생의 ‘마지막 수업’은, 아니 출판기념회 모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 위 글은 오마이뉴스(2017,2,12)에 게재된 기사를 필자의 동의하에 전재한 글입니다.

운동주 고향 북간도 명동촌 교육가 “이의순”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국자가 소영촌 찾아 가는 길
옥수수 드넓은 밭 그 어디쯤
임의 발자국 찍혔을까

선바위 모퉁이 돌아
북간도 명동촌 내 디딘 걸음

별 헤던 시인 난 동네
재잘재잘 소꿉동무 모아
무지개 꿈 심어주던 입을 그리네

이제는 마지막 잎새마저 떨어져
황량한 명동촌

그러나 또 다시 맞이할 봄을 그리며
이끼 낀 명동학교 뜰을 걸었네

이의순 (李義楸 1895 ~ 1945. 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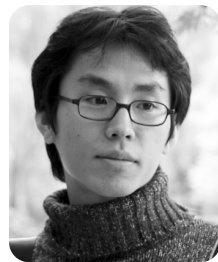
“나는 여자지만 대한민족의 한 사람이며 남자와 동등한 권한이 있는 이상 일제의 국가 강탈 앞에 어찌 편안히 있겠는가? 해외에 있는 여자로서 어찌 수수방관하고 재가안락(在家安樂)을 탐하면서 행복하다 할 것인가? 나는 저 원수의 총검 아래서 국가를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나의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이는 이의순 애국지사가 1919년 8월 29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열린 국치일 기념식장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이동휘 선생의 둘째 따님인 그는 운동주의 고향인 화룡현(和龍縣) 명동촌(明東村)의 민족학교인 명동여학교의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지사의 가족은 할아버지 이발 선생을 비롯하여 아버지 이동휘, 남편 오영선, 언니 이인순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집안이다.

이윤옥(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시집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있는 『서간도에 들꽃 피다』 전6권, 영문판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시집 『41 Heroines, flowers of the morning calm』, 『FLOWERING LIBERATION -41 Women Devoted to Korean Independence』 등이 있으며 친일풍자시집 『사쿠라 불나방』과 우리말 속의 일본말 찌꺼기를 다룬 『사쿠라 훈민정음』, 『오염된 국어사전』, 『창씨개명된 우리 풀꽃』, 외 다수.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 어느 젊은 군인의 초상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이안 감독의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 Billy Lynn's Long Halftime Walk>(2016)는 2005년 당시 이라크에 파병 중인 어느 미군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영화는 이라크의 전장과 미국 추수감사절의 일상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을 교차하면서 오늘날 미국 사회에 대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조건이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 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파병 중인 빌리는 한 전투에서 총에 맞고 쓰러진 선임하사 브림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용감하게 뛰어든다. 그리고 이 장면이 우연히 카메라에 촬영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빌리를 영웅으로 만들게 된다. 이를 계기로 빌리와 그의 브라보 분대원들은 2주 동안 미국을 순회하며 브림의 장례식과 함께 전쟁 홍보행사 등에 동원된다. 그들의 마지막 일정은 추수감사절 미식축구 경기의 하프타임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을 오갔던 전투에서의 극한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설고 어리둥절한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열아홉 살의 평범한 청년 빌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 할 수 있는 정신적 혼란을 겪는다.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는 미식축구의 하프타임 무대가

준비되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배경으로 일련의 회상 장면들을 따르며 어느 젊은 군인의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영화는 2012년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작가 벤 파운틴은 이 소설을 통해 독실함과 세속성, 폭력과 쾌락, 현실과 판타지 등 미국적 가치들의 이중성을 풍자적 이야기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같은 해 내셔널 북 어워드의 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영화 역시 원작으로부터 여러 인물들과 사건의 세부적인 설정을 빌려와 이야기에 다층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주인공 빌리는 좋은 환경 출신은 아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이미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까지 진학했던 누나는 교통사고를 당하며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재할 중이다. 파혼당한 누나의 복수를 하려다 교도소와 군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빌리는 결코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전형적 군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빌리와 같은 부대원들 역시 위태로운 중하류 계층들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군대에 자원하는 것 외에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젊은 이들일 뿐이다. 갑자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영웅 대접을 받고, 팝 스타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이들에게는 무척 흥분되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대중들의 관심과 함께 소비되는 자신들의 역할이 다해갈수록 불안감을 느끼며, 차라리 동료들과 함께 안심할 수 있었던 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빌리가 따르는 누나 캐서린은 무의미한 전쟁을 비난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고, 우연히 무대에서 만난 여대생 치어리더 페이스는 그에게 영웅의 이미지와 역할을 속삭이며 그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영화는 다소 옛되고 과묵하지만 심사 깊은 청년 빌리를 통해서 마치 사춘기 소년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듯 어떻게 충돌하는 가치들



▲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 중에서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대만 출신의 이안 감독은 변화하는 아시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음식남녀>(1994) 등 초기 작품들부터, 세계적 성공을 거둔 무협영화 <와호장룡>(2000)과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라이프 오브 파이>(2012)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작품성과 흥행에서 원만한 평가를 받아온 감독이다. 하지만 이안 감독은 전형적인 미국 가족의 위태로움을 다룬 <아이스 스톰>(1997)이나 동성애 관계를 다룬 <브로크백 마운틴>(2005), 그리고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파격적인 관능미로 그린 <색 계>(2007) 등을 통해서 논쟁적인 작품들 역시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에서 이안 감독의 연출도 조금 실험적인 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이야기 속에서 빌리의 현실 인식을 분열적인 모습으로 그려낸다. 빌리에게는 시민들이 환호하는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향하는 리무진이 어느새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가 보이는 시장에서의 임무 현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행사장에서의 공식 인터뷰는 부대원들끼리의 저질스러운 농담과 섞여서 들릴 때가 있다. 경기장의 관객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전장을 떠올리게 되는 빌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국기에 경례를 하는 경건한 순간마저도 금방 만난 치어리더와의 백일몽을 꾸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만다. 애국심과 같은 거대한 가치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순간적인 충동과 자기표현이 절실한 소년의 모습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열증은 마치 J.D. 셸러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사춘기 소년 주인공 콜필드가 이유 없이 추운 거리를 방황하는 것처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무모한 저항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 영화에 무너지는 중산층 가족의 어려움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세대의 무력감 등 성장소설에서 민감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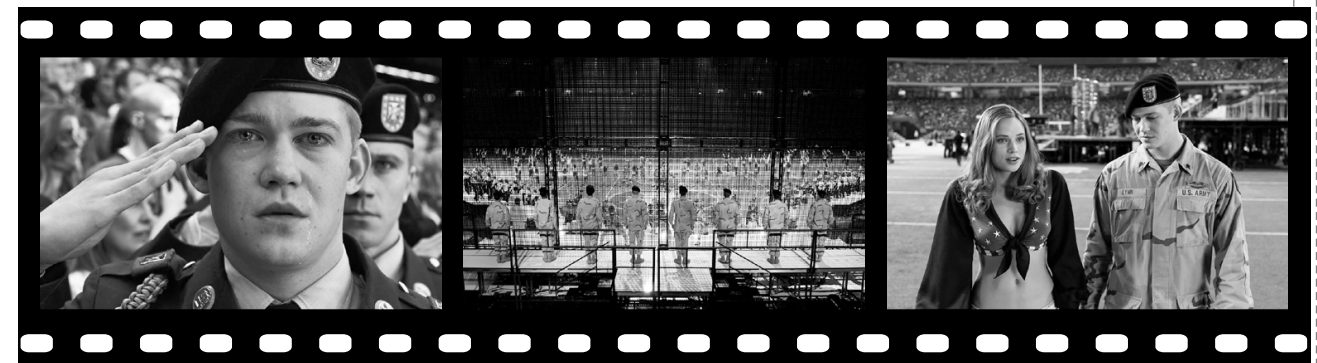
아닐 것이다.

이안 감독은 이 영화의 제작을 위해 기술적으로 최선의 고화질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초당 120프레임이 넘는 3차원 촬영은 그 이미지가 지나치게 사실적일 수록 오히려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생경하고 비현실적인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 사실 이 영화는 유독 주인공의 시선에서 대화하는 인물들의 정면을 가까이 묘사하는 클로즈업 장면들이 많다. 이는 아마도 원작 소설이 가지는 풍부한 문장 표현의 디테일을 대신하기 위해 배우의 얼굴과 표정으로부터 직접성과 모호함을 담아보려는 감독의 기술적인 실험을 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화제가 되었던 전작들과 달리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는 평단과 관객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국내에는 개봉도 하지 못한 채 인터넷TV 시장으로만 배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관객들에게는 영화의 기술적 의도를 극장에서 체감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군의 해외 파병이 계속 장기화되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전쟁의 의미를 되묻는 여러 영화들의 시도들이 있어왔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두 영화 <허트 로커>(2008), <제로 다크 서티>(2012)나 앤드류 니콜 감독의 <드론 전쟁: 굿 킬>(2014) 등은 미국이 선택한 전쟁의 방법에 대해 일부나마 자기 반성적인 관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안 감독의 영화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입장의 선명성만이 아니라 신중어린 모호함 역시 하나의 주장이 될 수 있다. 비록 영화 속에서 빌리는 다시 부대로의 복귀를 선택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명확한 결론이 아니라 임의적인 결과일 뿐으로 보인다. 우리는 섬세하고 어린 사람들의 상처에도 먼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 영화 <빌리 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 중에서





역사와 책임

-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 지은이 | 한홍구 •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 쪽수 | 272쪽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유신 시대’로,
‘자유당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우리 시대 시민들을 위한
현대사 원포인트 레슨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기시감(既視感)을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1970년대와 과연 얼마나 다른가? 아니 1940년대, 1950년대와는 또 얼마나 다른가? 왜 부끄러운 역사는 극복되지 않고 반복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리울 뿐이다. 절망의 오늘을 견디

는 이들에게 던지는 한홍구의 가슴 뜨거워지는 역사 에세이 《역사와 책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박근혜 정권 2년차, 구체적으로는 비서실장 김기춘의 등장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교훈을 찾는 내용이다. 특히 이런 문제의식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오기까지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속옷 바람으로 도망친 세월호 선장, 한강 다리 끊고 도망친 대한민국호 선장

저자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역사에 1980년 광주 못지않은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 진단한다. ‘광주’가 국가가 총칼로 국민을 직접 죽게 했다면, ‘세월호’는 국가가 죽어가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인가?”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현대사를 복기한다. 본문을 시작하는 ‘세월호, 역사 그리고 책임’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공격으로 함락 위기에 빠진 수도 서울에서 제일 먼저 달아난 ‘국부’ 이승만과 그 주변 세력을 조명한다. 이준석은 그나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과 그 세력은 서울로 돌아와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남아있던 이들을 북한의 부역자로 몰아가면서 이들을 처단하고 나섰다. 이 부역자 처벌에 앞장선 이들이 바로 냉전과 분단의 틈바구니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에서 애국적 반공투사로 변신한 이들이었다. 세월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사회 분열 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다리 끊고 도망갔던 친일파가 돌아와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간첩 조작, 내란 음모, 정당 해산 - 한국의 엘리트가 사는 법

이 책의 집필 시기인 박근혜 정부 2년차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시기이다. 간첩 조작 사건, 내란 음모 사건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까지 ‘우리 사회가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시기에 청와대 핵심 자리에는 ‘유신헌법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기춘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일찍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승승장구하여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요직을 거쳐 3선 의원까지 역임한 이 시대의 엘리트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제 시기, 일제 시기에서 해방, 군사독재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숱한 변화에도 한국 엘리트 집단의 본류는 단절된 적이 없다고 분석하는 저자는 오늘날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엘리트 집단의 중핵을 형성해온 사법 엘리트의 단면을 김기춘이라는 사례를 통해 드러낸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 장학생 출신인 김기춘은 박정희 집권 시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중앙정보부장 등을 두루 지낸 신직수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 밑에



서 극비리에 유신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당시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던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시절 한직으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5공 시절 밀려나 있었던 덕에 제6공화국이 되면서 화려하게 검찰총장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이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지역감정 조장의 극단을 보여준 ‘초원복직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살아남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대통령 탄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비단 김기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화 《변호인》 속 차동영과 같은 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안녕들하다. 부림 사건의 주임 검사 최병국은 얼마 전까지 울산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부림 사건의 원조인 학림 사건의 판사였던 황우여는 새누리당 대표를 거쳐 현재는 교육 부총리로 1,00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까지 국무총리를 맡았던 김황식은 재일동포 김정사 간첩 조작 사건의 판사였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과 엘리트 집단의 기원에 대해 새삼 조명하게 되는 이유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어제의 야당’은 역사의 시곗바늘이 역주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야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역사에서 야당이 정부의 잘못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때 국민들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투쟁성을 잃고 표류하는 지금의 야당에 쓰디쓴 충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우리 시대의 시민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우리 사회 기득권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얽치없이 행동하기 일쑤다. 하지만 대한민국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무책임한 선장을 두었음에도 선원들의 책임감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다. 저자는 세월호 이후 관련 강연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마쳤다고 한다. “해방 후의 역사만 보더라도 세월호보다 더 끔찍하고 광범위한 참사를 당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다리 끊고 도망가고 선장이라는 자가 혼자서 속옷 바람으로 도망쳐도, 기관장, 항해사, 갑판장 등속이 다 무책임하게 도망쳐도 대한민국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 대중들이 간직한 숨은 복원력 때문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자신에 내재한 이 복원력밖에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호를 책임지지 않는 자들,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이들이 움직여야 한다. 역사는 책임지는 사람들의 것이다.”



열사가 된 의사들 - 의사 독립운동사

• 지은이 | 원동오, 김은경 • 출판사 |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 쪽수 | 370쪽



일제에 항거하여 청진기와 태극기를 품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의사(醫師)들의 행적을 담은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 독립운동사>는 한국의사 100년 기념재단이 그동안 발굴한 의사독립운동가 중에서 주목할만한 10인의 스토리를 읽기 쉽게 재구성하고, 그들의 업적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책이다.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힘썼던 서재필 박사를 비롯하여 ‘몽골의 신의(神醫)’로 알려진 이태준, 온 집안이 독립운동가였던 김필순, 멀리 독일까지 건너가서 <압록강은 흐른다> 등 주목할만한 저서를 남긴 이미륵 등 의사출신 독립운동가의 활약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공중보건의 기틀

을 세운 김창세, 의사출신으로서 일제하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최정숙, 백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의사가 된 뒤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서양에 이르기까지 선각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사장 추무진)은 2006년부터 10년 동안 학자들을 중심으로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역사 속에 숨어있는 의사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으며, 2016년 3월 1일 50명의 독립운동가 명단을 발표했다. <열사가 된 의사들>은 이를 통해 발굴한 50명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비교적 풍부한 자료들이 남아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형식으로 구성했다. 안동대 사학과 김희곤 교수 등 역사학자들이 참여하여 수년간에 걸쳐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사료들을 모았고, 시인 원동오와 방송작가 김은경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누구나 읽기 쉽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마치 영화 <암살>이나 <밀정>속 독립운동가의 활약상을 보듯 의사독립운동가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다이나믹하게 펼쳐진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각자들의 삶이 재조명되고,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선보인 책이 아닐 수 없다. 또 구한말에서 한일합방, 3·1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세브란스의 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와 경성의전(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이 책을 통해 증명된다.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을 되찾기 위한 헌신했던 의사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후세들의 귀감이 된다.

한국 의사 100년 기념재단의 추무진 이사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시기에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를 되살린 책을 발간하게 돼서 의미가 크다”면서 “후학들은 물론 자라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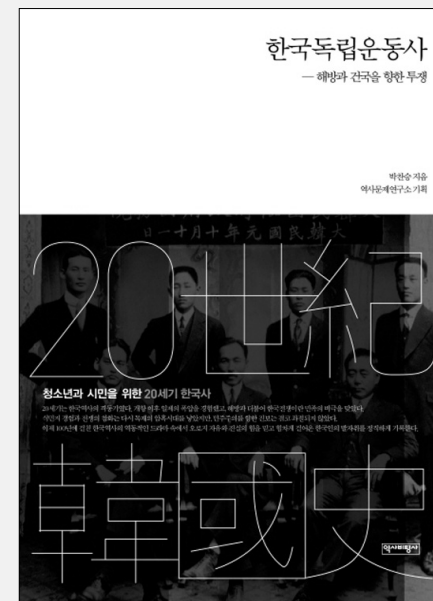
읽혀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에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독립운동사

- 해방과 건국을 향한 투쟁

• 지은이 | 박찬승 • 출판사 | 역사비평사 • 쪽수 | 408쪽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라.
낡은 질서를 버리고
평등과 자유의 새나라를 건설하라.

해방과 건국에
모든 것을 바친 치열한 역사를 만난다.
조국해방, 민주공화국 건설에 매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 총정리.

일본의 한국병합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동학 농민군, 의병 등으로 결집하여 치열한 저항운동을 펼쳤다. 병합 이후에도 만세운동, 무장투쟁, 외교운동, 의열투쟁,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끈질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한국인들은 단지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원했던 것은 조선왕조 혹은 대한제국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다. 다양한 이념과 경제체제의 구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독립운동의 분열은 뼈아픈 현실이었지만, 이념의 대립을 절충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건국이념을 만들어내 좌우를 통합하려는 노력도 분명히 있었다. 20세기 한국의 독립운동은 외세에 의한 분단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지만, 해방과 건국을 향한 그들의 희망과 열정을 이어받아 ‘통일’ 로써 ‘독립’ 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각 시기별 독립운동의 양상과 함께 그 배경이 된 일제 지배 정책을 살피다. 좌·우파의 독립운동에 대한 균형 있는 서술과 교과서적 구성.

이 책은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의 출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출범,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좌우 분화와 상호연대, 1930년대 독립운동 진영의 재편, 중일전쟁·태평양전쟁 시기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 등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기별로 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각 장의 앞부분에는 독립운동사의 배경으로서 각 시기 일제의 지배 정책을 정리했다.

1980년대 이후 학계 안팎에서 독립운동의 주류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① 민족주의 세력 중심론, ② 민족협동전선(민족통일전선) 세력 중심론, ③ 사회주의 세력 중심론 등이 논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 책의 필자 박찬승은 이렇게 독립운동의 한 특정 세력을 주류로 설정하는 것은 다른 세력을 비주류로 설정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어느 한 부류를 중심에 둔 서술을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서술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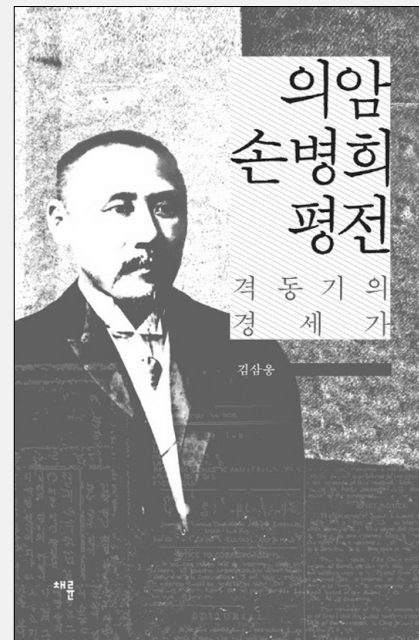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감옥을 수없이 드나들어야 했으며,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서 질병으로 희생된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국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느 나라로부터도 제대로 도움 받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가산을 팔고 재외 동포의 후원에 의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에 참여한 이들은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은 각지에서 각자 치열하게 싸웠으며 큰 희생을 감수했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모두 그 나름대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열과 반목이 아닌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한 이들의 활동은 더욱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책 본문 중에서 -



의암 손병희 평전 - 격동기의 경세가

• 지은이 | 김삼웅 • 출판사 | 채륜 • 쪽수 | 368쪽



암울한 시대,
그 속에서 싹튼
역사적 변혁의 중심에는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손병희가 있었다.

격변의 근현대사. 그중 손꼽히는 세 가지 역사적 변혁이 있었다. 반봉건·반외세 투쟁의 근대적 분기점인 동학혁명,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인 천도교 창설,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주의를 연 현대사의 출발점인 3·1독립혁명이다. 세상을 뒤흔든 이 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의암 손병희다.

그는 110여 년 전인 당시에 이미 보국안민의 계책으로 교육·문화의 도전론(道戰論), 정치·외교의 언전론(言戰論), 경제·산업의 재전론(財戰論)을 정립한 절세의 경륜가였다.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 보성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경영해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인지 계발에 미치는 언론의 영향을 깨닫고는 『만세보』와 『천도교월보』를 창간했으며, 3·1혁명 당시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보성사를 차려 출판 시작 인물이었다.

즉 그의 삶은 단순한 종교지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우리 시대의 사표이자 겨레의 스승으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는 삶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싹튼, 아주 중요한 역사적 변



혁의 중심에는 모두 손병희가 있었다. 그리고 그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3·1 혁명일 것이다.

**3·1혁명을 통해 열린 민주공화주의
하지만 3·1혁명은 3·1운동이 되어 버렸다.**

한국 역사의 참담하고 암울한 페이지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수많은 피와 눈물로 결국 우리는 표면적으로나마 해방을 맞이해 독립국이 되었으며 민주공화제를 이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1혁명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3·1혁명은 일제에 대항해 민중이 한 목소리로 자주독립을 외친 투쟁임은 물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국시대’의 서막이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만세 시위’가 아닌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혁명이 손병희의 존재가 아니었으면 성사가 가능했을까 할 만큼 그는 인격·신앙심·리더십·인력동원과 자금지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 첫 서명자를 의암 선생으로 추대할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출중한 인격을 가졌다. 이 책에는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의 비화도 담겨 있는데, 김새를 맡고 들어온 조선인 형사가 손병희의 독립정신과 인격에 감화되어 끝내 입을 다물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선생의 고결한 인품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1혁명은 그동안 일제의 관제용어인 3·1운동으로 불리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세계혁명사에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회과학적인 혁명의 정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세태를 보면 3·1혁명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참된 지도자 대신 지배자만 남아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의 반복,
손병희의 정신을 되새겨
길 잃은 우리에게 시대정신을 제시할 책**

지금 우리에게서 역사정 의가 없다. 일제에 강탈당한 조국과 주권을 되찾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모두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제 욕심 차리기에만 급급하다.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 후손들은 여전히 나라의 요직을 차지한 채 평평거리고 국민은 좌우로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헐뜯기 바쁘다.



지금 이 시점에 “의암 손병희 평전”을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우리 시대의 사표이자 겨레의 스승으로 삼아도 모자람이 없는 삶이었다. 비록 일제 치하여서 제민(濟民)의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보기 드문 경륜가였고 민족사의 격변기 때마다 시대정신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한 입체형 지도자였다. 우리 역사를 바꾼 3·1혁명의 핵심에 의암이 있었고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음에도 이 부문에 조명이 덜 되었으며, 평가에 있어서도 인색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동학혁명 과정에서 그리고 천도교 역사에서 손병희의 역할이 묻힌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시기 손병희와 천도교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공적을 되찾자는 것이 아니라, 3·1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공화제의 출발점이며, 국민통합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해서 민족공동체의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정의’를 바로잡자는 의미이다.

역사를 바르게 보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인물 평전을 집필한 저자의 통찰력과 필력으로 태어난 손병희는, 역사를 바르게 세워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이때, 난제를 해결할 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 올해(2017)부터 새로 시작되는 제5기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5기 임원 명단 (2017~2019)

직 위	성 명	비 고
회 장(1명)	김 자 동	본회 회장
상임부회장(1명)	곽 태 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부 회 장 (10명)	김 정 룩	김상덕 선생 자/ 광복회원
	김 호 진	고려대 명예교수/ 前노동부장관
	남 만 우	前광복회 회장 직무대행
	신 복 룡	前건국대 석좌교수
	이 종 찬	前국가정보원장, 우당기념관장
	이 해 동	목사/ 前덕성학원 이사장
	임 재 경	前한겨레신문사 부사장
	정 관 훈	성인제약 대표
	주 섭 일	언론인
	함 세 응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 사 (55명)	권 경 업	시인
	권 영 관	권태석 선생 자
	김 광 림	국회의원
	김 삼 응	前독립기념관장
	김 선 현	㈜오토그룹 회장
	김 성 희	귀암 김용중선생 기념사업회장
	김 수 옥	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김 윤 수	김순철 선생 자
	김 원 규	동원대 교수

직 위	성 명	비 고
이 사	김 정 인	광복회원
	김 준 상	우사 김규식 연구회 연구원
	김 진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위원장
	김 판 수	㈜호진 플라스틱 대표 이사
	김 학 민	前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 희 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장
	노 시 선	前어린이재단 부회장
	노 용 래	국회의원
	류 시 경	민족뿌리회 상임의장
	민 영 백	민필호 선생 자
	박 덕 진	본회 연구실장
	박 의 란	박건용 선생 자
	박 정 근	MBC통일방송 협력단장
	박 창 기	㈜프락시스 사장
	빙 인 섭	前 본회 사무처장
	서 흥 관	국립암센터금연클리닉 책임의사
	심 재 권	국회의원
	안 병 원	前대한석유협회장
	염 락 원	염온동 선생 자
	원 영 애	독립극장 대표
	원 혜 영	국회의원
	유 기 흥	국회의원
	유 인 택	㈜기획시대 대표
	윤 경 자	윤기섭 선생 자
	이 규 중	이진영 선생 자

직 위	성 명	비 고
이 사	이 기 자	통일염원시민대회 대표
	이 두 엽	(주)호남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이 상 준	골든브릿지 대표
	이 양 순	서오텔레콤 주식회사 부회장
	이 영 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
	이 윤 옥	한일 어울림 문화 연구소장/ 시인
	이 일 선	분회 사무처장
	이 정 재	남서울대 영상예술 디자인학과 교수
	이 종 결	이회영 선생 孫 / 국회의원
	이 창 중	삼성메디컬센터 원장
	이 철	前국회의원, 前코레일 대표
	장 두 원	아시아 투데이 부회장
	정 동 의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정 만 기	일광기념관 관장
	정 철 승	법무법인 더평 대표 변호사
	조 세 현	의병정신선양회 부회장
	조 영 빈	뉴스1 기자(청년이사)
	조 회 환	한국외대 명예교수
	천 정 배	前법무부 장관, 現국회의원
	홍 용 희	(주)부영주택 근무(청년이사)
황 인 자	前국회의원	
감 사 (2명)	이 동 철	이원대 선생 자
	김 석 민	신정회계 법인 회계사

제3차 임정 아카데미 개최



3월 15일(수) 프란치스코 4층 430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제3차 임정 아카데미가 개최되었다. <제3강. 임시정부의 오래된 꿈.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연성수(2017 민주평화포럼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본회 회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올바른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반유신 민청항쟁 43주년



4월 1일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 주최하는 ‘반유신 민청항쟁 3주년 작고 민청동지 추모식’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청항쟁은 유신독재 철폐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에 전국 각지에서 반독재 시위를 추진한데서 비롯되었

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반정부투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청학련 관련자(1,024명)들을 정부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으로 몰아 사건을 조작하여 그 중 180명을 구속하였다. 이 중 인혁당(人革黨) 사건과 관련된 8명은 사형되었고, 나머지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민청항쟁은 1970년대 반독재 저항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으로 이후 학생운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3.1절 기념 학술세미나 및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79주기 추모식



도산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재단이사장 권영신)주최로 제98주년 3.1절 기념 연합 학술세미나와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3월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LA 코리아타운 가든스윅 호텔에서 열렸다.

민병용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1부 홍명기 회장(미주도산기념사업회)의 축하 메시지와 이명화 박사(도산학회운영위원)의 3.1절기념 학술세미나 “도산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주제발표와 2부 도산안창호선생 순국 79 주기 추모식이 있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도산말씀 낭독, 추모식사(이장훈), 항일 독립운동의 빛 도산안창호 영상, 이기철 LA총영사, 홍명기 기념사업회장, 권영신 기념재단이사장등의 추념사와 추모가(선구자) 제창이 있었다.



탄운 이정근의사 순국98주기 추모제



3월 25일(토) 오전 11시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탄운 이정근의사 창의탑 앞에서 탄운 이정근의사 순국 9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탄운 이정근 의사는 대한제국 궁내부 주사로 재직하던 중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자 화성으로 낙향하여 팔탄, 우정, 장안, 정남, 봉담, 남양 등 7개면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에 힘썼다. 이후 1919년 3월 31일 화성군 향남면 발안 장날을 기해 1천여 명이 함께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진두지휘했다.

이때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탄운 선생은 격노한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들에게 투석으로 대항하였으며 일본인 순사부장을 해치웠다. 그러나 이날 일본 경찰이 휘두른 칼에 찔려 56세로 그 자리에서 순국하는 비통한 일이 일어났다.

올해 순국98주기를 맞이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탄운 이정근의사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민족혼을 기리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식



4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9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독립유공자 후손, 각계대표, 일반 시민들 등 1천 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선열들이 이룩한 조국독립, 하나 되어 지켜 나갈 대한민국”이란 슬로건 하에 3·1운동을 바탕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기림과 함께 영토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국민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하고자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중국 중경, 미국 L.A. 등에서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식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식이 부천 안중근공원에서 열렸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민병호 부천시의회부의장, 광복회원, 보훈관계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날 행사는 안 의사에 대한 헌화·분양, 약전 낭독, 추모사, 헌시, 추모가 순으로 진행됐다.

김만수 시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이 자리가 안중근 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현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반입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부천에 유치해 중동공원을 역사학습 테마공원인 ‘안중근 공원’으로 조성했다.

안중근 공원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비롯해 안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부조벽화, 유목 22점, 2014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세계에 알린 만화 ‘지지않는 꽃’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가 설치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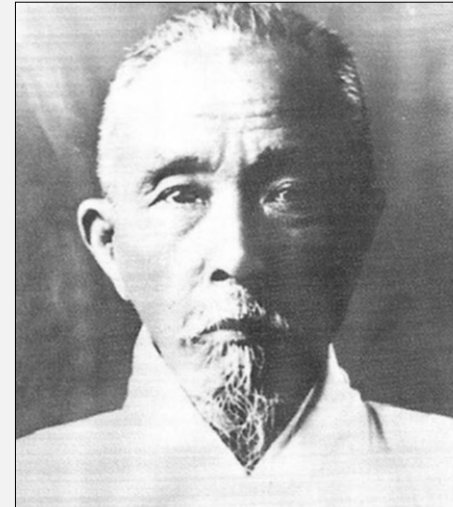
매년 3월 26일 안중근의사의 추모제를 열고 10월26일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 하고 있다.

1879년 황해도 해주 출신인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초대 조선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하는 의거를 행한 뒤, 이듬해 뤼순 형무소에서 순국하셨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안중근 의사 허묘는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46년 백범 김구 선생 주도로 조성되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되찾아 오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월남 이상재선생 제90주기 추모 기념식



3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회관에서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 제90주기 추모기념식이 열렸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50년 충남 서천군에서 태어나 구한말·일제강점 시기에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 민권운동가, 청년운동가로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개화운동에 참가해 서재필·윤치호와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서울YMCA의 전신) 회장으로 물산장려운동과 소년연합척후대(보이스카우트의 전신) 운동·학생청년회운동 등을 주관했다.

90주기 추모기념식은 1부 추모식과 2부 추모기념 학술세미나로 이루어졌다. 추모식에서는 추모사진전과 문화행사, 추모 시 낭독, 대표기도, 추모사, 유족 대표 인사,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이상재 선생의 생애와 사상,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기념사업회 공동대표인 민경배 백석대 석좌교수가 특별기조연설을 하고,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김명구 교수 등이 발제 및 토론을 펼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4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가 열렸다. 학술회는 이명박 前 대통령 때부터 불거진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어 김희곤 안동대 사학과 교수, 쉰커즈 중국 후단대학 교수, 브랜든 팔머 코스탈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한시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침략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승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임시정부가 세계열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점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또한 “임시정부 계승론자”로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던 사실, 미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도 독립 국가를 수립한 날이 아닌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이 날 학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의 축하 및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정치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500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 날 학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의 축하 및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정치 인사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500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감사합니다.



3월 24일 본회 회원인 이해나님이 본회 사무실에 찾아와 성금 713,000원을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해 후원해주셨습니다. 이해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안중근 의사 배지를 제작하여 판매했습니다. 배지 수익금 전액인 244,600원과 이해나님의 개인 후원금 466,600원을 총합한 713,000원은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수립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안중근 의사 배지에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에 앞장 선 민주주의 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해나님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곧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이해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onnenaufgang.haena>

이해나 연락처 010-9288-7395

제98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75명)

◆ 건국훈장 애국장(12), 건국훈장 애족장(31명), 건국포장(18명), 대통령표창(14) ◆

☞ 건국훈장 애국장(12)

김덕선 金德宣 (노령방면)	박형병 朴亨秉 (국내항일)	이만년쇠 李萬年釁 (의병)
김병훈 金秉薰 (국내항일)	양충신 梁忠信 (의 병)	전성서 田聖瑞 (의 병)
박봉길 朴鳳吉 (만주방면)	양치선 梁致先 (의 병)	정호섭 鄭鎬涉 (노령방면)
박양운 朴良云 (의 병)	양희연 梁希彦 (3·1운동)	한순직 韓淳稷 (국내항일)

☞ 건국훈장 애족장(31명)

권시한 權時漢 (의 병)	엄춘일 嚴春日 (의 병)	이기삼 李基三 (의 병)
권태선 權泰善 (국내항일)	오건해 吳健海 (중국방면)	이봉술 李鳳術 (의 병)
김병인 金秉仁 (중국방면)	오덕문 吳德文 (의 병)	이숙진 李淑珍 (중국방면)
김복만 金福萬 (국내항일)	우수안 禹守安 (의 병)	이승빈 李承彬 (국내항일)
김수현 金秀賢 (중국방면)	원명중 元明仲 (의 병)	이윤천 李允天 (국내항일)
김여근 金汝根 (3·1운동)	유경칠 柳敬七 (의 병)	이헌경 李憲卿 (중국방면)
김연태 金演泰 (3·1운동)	유길상 柳吉相 (의 병)	임치호 林致昊 (미주방면)
박재옥 朴在玉 (국내항일)	윤용자 尹龍慈 (중국방면)	홍성서 洪性西 (의 병)
신화선 申化善 (의 병)	이공서 李公瑞 (의 병)	황마리아 黃瑪麗亞 (미주방면)
심대유 沈大有 (의 병)	이구영 李求榮 (의 병)	
안춘흥 安春興 (의 병)	이금석 李錦錫 (국내항일)	

☞ 건국포장(18명)

고영택 高永澤 (국내항일)	박영진 朴英鎭 (국내항일)	이항근 李恒根 (국내항일)
공연규 孔兪圭 (국내항일)	오재영 吳在英 (만주방면)	임덕문 林德文 (3·1운동)
김공렬 金公烈 (국내항일)	유돌이 劉斗伊 (의 병)	정윤흥 鄭允興 (3·1운동)
김시홍 金始弘 (국내항일)	유명식 劉命寔 (3·1운동)	천학서 千鶴書 (3·1운동)
나병렬 羅炳烈 (국내항일)	이임배 李林培 (국내항일)	최선택 崔善澤 (3·1운동)
박봉래 朴鳳來 (3·1운동)	이치완 李致完 (미주방면)	현용묵 玄龍默 (3·1운동)

☞ 대통령표창(14)

권용학 權龍鶴 (3·1운동)	두을경 杜乙慶 (3·1운동)	정원채 鄭袁采 (의 병)
김성룡 金成龍 (국내항일)	백인봉 白仁鳳 (3·1운동)	피한봉 皮漢奉 (3·1운동)
김율봉 金栗鳳 (국내항일)	신규선 申奎善 (국내항일)	한개문 韓開文 (3·1운동)
나학용 羅學用 (3·1운동)	신필범 愼弼範 (3·1운동)	한진우 韓鎭愚 (3·1운동)
도우황 都宇黃 (3·1운동)	정방모 鄭邦模 (국내항일)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7년 1월, 2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회원명	1월	2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창윤	10,000	10,000
강만길	2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창중	20,000	2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철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경업	50,000	50,000	배상운	5,000	5,000	이학효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석준	5,000	5,000	이항중	30,000	3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해나		2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해준	10,000	10,000
김광재	5,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률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재광	12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삼웅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송만섭	10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경숙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승준	10,000	10,000	신홍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영방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광일	50,000	
김영일	10,000	10,000	심옥주		5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안재용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양인선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원수	20,000	20,000	안효진	10,000	10,000	조기식	10,000	
김윤영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은수	10,000	10,000	엄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영빈		5,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원영애	20,000	2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종성	10,000	10,000	유덕곤	10,000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중숙	10,000	10,000	윤경자	40,000	40,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용황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진현	50,000	5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태원	10,000	10,000	윤한욱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수희	30,000	30,000
김학근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익석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춘희	12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두엽		50,000	한홍구	20,000	2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두희	30,000	3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병운	10,000		홍석천	5,000	5,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홍용희	10,000	1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훈	10,000	20,000	황명하	10,000	10,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양순	20,000	20,000	황용만	5,000	5,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황인자	3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동기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중찬	100,000	100,000			

2017년 1월, 2월 특별회비

회원명	1월	2월
㈜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이순희	700,000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②

여운형과 서대문형무소

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함양 여씨 여정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배재학당, 홍화학교, 우무학당 등에서 수학했고 광동학교·초당의숙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금릉대학을 다니며 신한청년당, 고려공산당, 중국혁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청년기까지 여운형은 교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변신했고, 사상적으로도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까지를 섭렵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로 거듭났다.

그가 일생에서 서대문형무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모두 3차례였다. 첫 번째는 1929년 7월 10일 상해 대마로(大瑪路)경마장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 1930년 9월 대전형무소로 이감될 때까지 약 13개월간이었다. 수형자기록카드에는 앞면에는 혐의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적혀 있지만, 예심결정서에는 大正8년 制수 제7호 위반으로 되어있고,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면소(免訴)한다고 되어 있다. 뒷면 사진에는 그의 상징과 같은 카이젤수염은 물론 머리까지 밀린 죄수의 몸이 되어 식민지의 비극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여운형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여러 가지 병을 앓았다. 이미 서울로 압송된 직후에 신경통이 심해졌으며, 치질이 심해져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예심공판(1930. 4. 9) 전에 치질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는 못했다. 수술결과 항문에 두 개의 구멍(兩穴)이 생겨 목욕탕에 들어가면 연적에 물이 들어가듯 한편으로는 물이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공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¹⁾ 신경통도 심해져 몸의 왼쪽이 둔하여졌고, 귀도 현저히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²⁾ 이런 연유로 1930년 4월 병보석을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다.³⁾ 대전감옥으로 이감된 이후 그물(漁網)뜨기 노역을 했는데, 45~46세의 중년으로 하루 종일 앉은 자세로 그물을 뜨며 질 낮은 감옥밥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⁴⁾ 여운형은 감옥의 규칙을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옥내에서 옥규를 잘 지키고 성근(誠勤)한 성격”으로 ‘근공장(勤功章)’을 탕다는 소문은 이미 장안에 파다했던 것으로 보인다.⁵⁾ 심산 김창숙은 여운형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규를 잘 지켜서 상표(賞票) 3개를 받았고, 도산 안창호는 상표 2개를 받아 가출옥의 특전을 꿈꿨다고 비판한 바 있다.⁶⁾ 유학적 윤리관이 몸에 배었던 벽옹의 입장에서는 일제의 규율을 지킨다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 있겠으나 여운형과 안창호는 근대적 문명관을 가졌으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으므로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 사회활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투옥은 1942년부터 1943년까지였다. 치안유지법 위반, 육해군형법 위반,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투옥되었는데 1942년 4월 동경 방문 시 미공군의 동경공습을 목격하고 일본 패망을 예견하는 한편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희망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였다. 세 번째로 서대문형무소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해방이 되어 한국 정치범들을 석방시킨 일이었다. 일제의 마지막 발악기 감옥에 갇혔던 독립투사·애국자들이 석방되었고, 이들은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 해방 조국을 건설하는 주역이 되었다.

여운형은 그 일생을 통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며 애국자였다. 식민지 하에서는 독립운동의 한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해방 후에는 통일·독립을 위한 좌우합작·남북연합의 길을 추구했다. 독립운동가이자 혁명운동가였으며, 애국자이자 대표적 대중정치인이었으나 해방이후 12차례의 정치테러 끝에 생을 마감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고자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1) 「百人百話 소식」, 《개벽》신간 제3호, 1935. 1. 1.

2) 《중외일보》, 1930. 4. 10.

3) 《동아일보》, 1930. 4. 1. 4. 3. 4. 4; 《중외일보》, 1930. 5. 13. 5. 14.

4) 「大田監房의 兄 呂運亨 그물뜨며, 消化不良으로 아러」, 《三千里》제3권 제9호, 1931. 9. 1.

5) 「3년 이내에 자유인이 될 죄수들 소식」, 《三千里》제4권 제8호, 1932. 7.

6) 김창숙은 회고록에서 여운형이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우리를 보면 반드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고, 안창호 역시 감옥의 규칙에 잘 복종했다고 썼다. 『心山遺稿』卷五 雜記 壁翁七十三年回想記 中編.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주최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대학내일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학명 No.1 미디어

제 13기 투립정신 답사단 모집

어서와~
임정 답사는
처음 이지?



답사지역 _ 서안 - 낙양 - 섭현 - 한단 - 석가장 - 북경

답사기간 _ 2017년 7월 18일(화) ~ 7월 24일(일)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50명, 일반인 10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대학생 및 일반인,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7년 5월 25일(수) ~ 6월 6일(수)

선발발표 _ 2017년 6월 9일(금) 본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학생 65만원, 일반인 150만원 (일체경비 포함)

기 타 _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 참조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